논어 7편 술이 8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不憤不啟；不悱不發。擧一隅，不以三隅反，則不復也。」

독음 · 자왈 불분불계 불비불발 거일우 불이삼우반 즉불부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스스로 알려고 애쓰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고, 말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열어 주지 않는다. 한 모서리를 보고 나머지를 생각해 내는 배움의 주도성이 필요하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不 아닐 불 / 憤 결낼 분 분

啟 열 계 / 悱 표현 못할 비 비 / 發 쏠 발 발 / 擧 들 거 거

一 한 일 일 / 隅 모퉁이 우 우 / 以 써 이 이 / 三 석 삼 삼

反 돌이킬 반 반 / 則 곧 즉 / 復 돌아올 복 복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